Week 5
이사야 25:6-9 “식탁 위에 모이다” (“Gather at the Table”)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며,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저희 자신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다른이들의 경험과 삶의 모습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이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른이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나아가기까지는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요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른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께서 저희가 행하기 원하시는 일임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것은,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과 인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창조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C.S. 루이스의 널리 알려진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갈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소원하시고 계신 것들의 단서(hints)이자 메아리(echoes)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갈망들은
종종 우리의 창조주께서 그의 창조물들을 향해 담고 있는 소원을 반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갈망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소원을
 위해 
¤é¯|°ù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것
 입니다. 이사야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
에
 모습을
 영광스러운
 축제와

연회의
 모습으로
 그려나가도록
 반복적으로

●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런 만찬이자 축제로 묘사된 다가오는 하나님나라의
샬롬(깊은 평안이자 모든 것이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려나가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 만약 구원(salvation)과 억압으로 부터의 해방(